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전체지각의 관계

신 홍 임[†]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BK21사업단

암묵적 연합검사는 연구참가자의 내면적인 태도를 측정하고,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연합검사를 토대로 한 개인의 창의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부정적 태도가 창의적인 과정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 전체지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에서는 대학생 참가자에게 창의성/실용성과 긍정/부정단어들을 각각 짝지어 제시한 후, 창의성-긍정단어에 대한 반응시간과 창의성-부정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의 차이를 통해 암묵적 태도를 측정했다. 그 이후 참가자들은 전체유형 혹은 부분유형으로 나타나는 글자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는 네이본 과제를 수행했다. 그 결과,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적은 참가자집단에서 전체지각의 반응시간이 부분지각의 반응시간보다 더 빠르게 나타났으며, 전체지각의 이득이 나타났다. 반면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이 높은 참가자집단에서는 전체지각과 부분지각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전체지각의 이득이 사라졌다. 이 결과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편견은 자신의 창의적 과정과 부정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며, 창의성의 예측에서 암묵적인 태도 측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암묵적 연합검사, 창의성, 편견, 전체지각

[†] 교신저자 : 신홍임,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BK21사업단,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718호

E-mail : shin7038@naver.com

창의성은 참신하고(novel) 적합한(appropriate) 아이디어나 제품 또는 문제해결방식을 도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Hennessey & Amabile, 2010). 창의성¹⁾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시키기에 사회와 학계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창의성 향상에 대한 연구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창의성은 우리 모두가 긍정적으로 여기며, 사회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속성인가? 성은현 등(2008)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획일화된 입시위주의 교육과 고정관념, 격식과 형식을 강조하는 풍토가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창의성은 한편으론 사회 전반적으로 독려하는 속성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사회에서 오히려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방해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창의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서구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Mueller, Melwani와 Goncalo(2012)는 실험참가자들에게 실험종료 후에 복권에 당첨될 경우, 추가적으로 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시를 주면서 불확실성의 개념을 활성화

화시키면, 참가자가 창의성에 대해 암묵적으로 부정적인 편견²⁾을 갖게 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창의성이 불확실성과 부정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Mayer와 Mussweiler(2011)는 사회적인 불신(distrust)의 분위기가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실험참가자들에게 ‘불신’의 단어를 어휘판단과제에서 수차례 제시하여, 불신의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킨 후, 일상용품(예: 신문지)의 새로운 용도를 가능한 많이 적는 아이디어 생성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중 참가자의 한 집단은 사회적인 맥락에서(예: 자신의 아이디어가 옆방에서 동일과제를 하는 타인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알려줌) 아이디어 과제를 수행했고, 다른 집단은 사적인 맥락에서(예: 결과물을 컴퓨터에 저장할 것을 지시) 수행했다. 결과에 의하면, 사적인 맥락의 불신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향상시키지만, 사회적인 맥락의 불신은 참가자를 불안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성과를 양적, 질적으로 감소시킴을 보여주었다.

1) 이 정의에 대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Kaufman, 2003), 창의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전반적으로 이 정의에 동의하고 있다(Hennessey & Amabile, 2010). 참신성은 아이디어, 제품 및 문제해결방식의 새로움을 의미하며, 적합성은 개인 혹은 사회집단을 위해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참신성과 적합성은 창의성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참신성을 기준으로 창의성을 측정할 때, 어느 정도 환경적으로 참신한 자극이 부여되었는지(환경의 참신성) 또는 한 개인의 반응이나 행동이 어느 정도 참신했는지(결과물의 참신성)를 구분하게 된다(Sullivan & Ford, 2005).

2) 편견은 특정 대상이나 사회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부정적인 정서 및 사고를 포함한다(Brewer, 1999). 본 논문에서는 암묵적인 편견(implicit prejudice)을 한 개인이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부정적인 태도로서 정의한다. 명시적인 편견이 의식적으로 표출되는 부정적인 태도인데 비해, 암묵적 편견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며, 비의도적이고 자동적으로 표출되는 부정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Dovidio, Kawakami & Gaertner, 2002). 명시적인 편견은 전통적인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일반적으로 활용하며, 암묵적인 편견은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Greenwald & Banaji, 1995), 어휘판단과제 등을 통해 측정한다.

위의 두 가지 연구에서는 실험에서 참가자가 불확실성이나 사회적 불신을 경험하게 하는 상황의 조작을 통해 사회적 요인들이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들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태도를 상황에 따라 조작되고, 변화될 수 있는 특정한 상태(state)로서 정의했다(Hennessey & Amabile, 2010).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태도를 한 개인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향(trait)으로서 보고, 이것이 창의적인 결과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적으로 창의성을 독려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해하는 모순되는 분위기가 있다면, 한 개인이 의식적으로 외부에 표출하는 창의성에 대한 명시적인 태도와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있는 암묵적 태도 간의 차이가 나타날 것을 예측한다. 또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개인(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높은 개인)일수록 명시적인 태도와 암묵적 태도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개인(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낮은 개인)에 비해, 창의성과 연관된 지각의 처리유형과 창의적인 결과물의 생산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외부적으로 표출되지 않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와 자신의 창의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³⁾.

3) 본 연구에서는 상황변인이 조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한 개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와 창의성의 관계를 탐색한 기초연구의 결과로서 참고하실 것을 제안드린다.

창의성과 전체지각

Navon(1977)은 여러 개의 부분형태로 이루어진 전체형태의 자극을 사용하면서 지각에서 전체처리와 부분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극을 활용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전체/부분지각과 심리적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부분지각에 좀 더 주의를 향하도록 하는데 비해(Derryberry & Reed, 1998),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는 전체지각을 좀 더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Gasper & Clore, 2002). 또한 Förster와 Higgins(2005)는 현재와 연관된 안전(safety)의 동기는 부분지각을 더 수월하게 하고, 미래와 연관된 상승(promotion)의 동기는 전체지각을 향상시킨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Fredrikson과 Branigan(2005)은 긍정적인 정서는 사고 및 주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부정적인 정서는 사고 및 주의 영역을 축소시킴을 네이본 글자와 유사한 지각과제를 활용하여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정서가 한 개인의 모든 인지적 자원을 동원하게 하여, 전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고, 주의의 영역을 확장시켜 전체를 바라보게 한다는 Fredrikson(2001)의 확장-수립이론(broaden-build-theory)와 잘 일치한다. 이와 더불어 Förster(2005)는 지각의 범위와 사고의 범위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참가자의 한 집단에게 전체글자만을 계속 보게 하고, 다른 한 집단에는 부분글자만을 보게 하여, 전체지각과 부분지각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두 가지의 상이한 개념(예: 로텐의 생각하는 사람과 메탄가스)간의 유사성 또는 차이점을 찾게 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전체지

각의 집단은 상이한 개념들간의 유사성을 더 많이 발견했고, 부분지각의 집단은 차이점을 더 많이 발견했다. Förster는 이 결과를 전체지각에 초점을 두면 사고의 영역이 확장되는 발산적 사고가 촉진되어 상이한 개념들을 아우르는 유사성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반면, 부분지각에서는 사고의 범위가 축소되어 다양한 개념들 간의 차이점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전체지각 혹은 부분지각의 문제는 우리의 정서, 동기 및 사고유형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창의성은 지각의 유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최근 Friedman과 Förster(2005)는 실험실 상황에서 유발된 접근/회피 동기가 지각 및 창의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자들은 실험에서 원하는 목표로의 접근동기가 유도되었을 때(예: 미로에서 먹이통로 찾기), 전체지각이 더 촉진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예: 나무판의 새로운 용도 생각하기)이 향상되었으며, 이에 비해 회피동기가 유도되었을 때는(예: 위험에서 벗어나는 출구찾기) 부분지각이 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분석적인 문제해결(예: 수학문제)이 촉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창의성은 부분지각보다는 전체지각과 좀 더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들은 창의적인 과정에서는 기존의 틀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체지각이 부분지각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Marguc, Förster와 Van Kleef(2011)는 창의적인 결과물이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일상에서의 관찰을 토대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물(예: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이 창의성 및 지각의 유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했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참가자가 과

제수행을 할 때, 단어나 숫자를 방해소음으로 제시한 물리적 장애물의 조건에서 다른 통제 조건에 비해 알파벳에 대한 전체지각이 부분지각보다 더 촉진되었으며, 단어범주화과제의 의미적 범위(conceptual scope)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새롭고 낯설은 상황에 부딪히면 전체처리가 부분처리보다 더 선행된다는 이론으로 설명했다. 즉, 장애물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처리를 촉진시킨 것이며, 기존의 구조를 재해석하는 전체처리의 과정을 통해 창의적 과정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

일반적으로 창의성에 관한 선행연구들(Guilford, 1967; Torrance, 1966)에서는 창의성을 유창성(fluency), 독창성(originality) 및 유연성(flexibility)으로 조작정의한다. 유창성이 양적 풍부함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독창성은 문제 해결방식과 아이디어의 참신함을 의미한다. 또한 유연성은 다양한 범주나 관점들을 통합하여, 색다른 아이디어와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통찰에 의한 문제해결의 과정이다. 최근 McCaffrey(2012)는 통찰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 기능적 고정화(functional fixedness)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4) 단어범주화과제에서는 한 범주(예: 가구)에 대해 전형성이 높은 단어(예: 책상)와 전형성이 낮은 단어(예: 전화기)를 제시하고, 각 단어들에 대한 전형성을 평정하도록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전형성이 낮은 단어들의 전형성에 대해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의미적 범위가 넓은 것으로 해석한다.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지금 부딪힌 문제의 새로운 측면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는 새로운 측면을 토대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예: 종이컵의 새로운 용도를 생각해보기)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상의 틀에 박힌 용도(예: 종이컵으로 물마시기)나 상황의 전형적인 특징에만 얽매어 있는 기능적 고정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은 대상의 잘 알려진 특징에 처음부터 초점을 맞추는 수렴적 사고보다는 가능한 많은 대안들을 생각해 보는 발산적 사고에 의해 촉진될 것이다. Dijksterhuis와 Meurs(2006)에 따르면 창의적인 문제해결과정에는 통찰이나 ‘아하(aha)’ 경험과 연관되는 부화(incubation)의 단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이 단계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며, 수렴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발산적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발산적 사고는 정서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De Dreu, Baas와 Nijstad(2008)는 생생하게 활성화된 정서(예: 들뜸, 두려움)의 상황에서 가라앉은 정서의 상황(예: 우울함, 이완)보다 창의적인 결과물이 좀 더 많이 생산되었다. 또한 활성화된 정서의 특성에 따라 창의적 결과물의 양이 달라졌다. 이 연구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유도하면 창의적인 결과물이 양적으로 풍부해졌으며, 부정적인 정서를 유도하면 창의적인 결과물이 양적으로 감소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긍정적인 정서는 인지적 유연성과 발산적 사고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양적 풍부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창의적인 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산적 사고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편견과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창의성에 대한 편견이 높은 개인일수록 창의성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을 것이며, 부정적인 정서는 수렴적 사고유형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창의성에 대한 편견이 낮은 개인들은 창의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으며, 발산적 사고가 자주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창의성에 대한 편견이 낮은 집단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편견이 높은 집단에 비해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에서 한 대상의 새로운 측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대상의 기능을 재해석하는 경향이 높아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많이 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암묵적 연합검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속성들에 대해 개인은 부정적인 태도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기가 힘들다(이현지, 방희정, 2012). 창의성에 대해서도 사회의 규범적 압력 하에 양면적인 태도가 존재하는 것 같다. 선행연구(Mueller et al., 2012)에서는 창의성에 대해 외적으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개인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에서 실패할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무의식적으로 자주 연상시키기 때문에 암묵적으로는 창의성을 거부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창의성에 대한 양면적인 태도는 창의성이 중요한 목표로 부각되는 사회일수록 더 증가한다. Staw(1995)는 창의성이 예찬되는 조직일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험이나 손실 혹은 이상과 연관시켜

배제하고 있으며, 창의성을 독려해야 하는 학교장면에서도 교사들이 자기보고식의 질문에서는 학생들이 창의적일수록 더 즐겁게 일한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는 창의적인 학생들을 심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by & Dawson, 1995).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은 한 개인이 특정 사회집단(예: 여성, 노인, 유색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표출할 수 없는 것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의성이 중요한 사회적 목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신민희, 구재선, 2010), 개인은 창의성을 실패 혹은 불확실성과 연관시키며 배제하려는 태도를 숨기려 하거나 또는 자신의 부정적 태도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창의성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고(Greenward, Poelman, Uhlmann & Banaji(2009), 이 두 영역간의 차이를 통해 한 개인이 어느 정도 창의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창의성에 대한 명시적 태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며, 암묵적 태도는 Greenwald, McGhee와 Schwartz(1998)를 토대로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연합검사(IAT: 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설계하여 측정할 수 있다. 암묵적 연합검사는 한 개인에게 표상되어 있는 개념들간의 자동적인 연합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자기보고식 검사보다 좀 더 정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노경란, 방희정, 2009). 또한 선행연구들(Nock & Banaji, 2007; Castelli, Zogmaister & Tomelleri, 2009)에 의하면 암묵적 연합검사는 한 개인의

마음에 현재 내재되어 있는 태도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예: 자살시도, 인종차별)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해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암묵적 태도에 따라 지각의 전체처리와 부분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암묵적인 사회적 불신의 분위기나 독창적인 의견을 주장할 때 비판을 두려워하는 심리적 불안이 창의성을 저해하고(Cameli, Reiter-Palmon & Ziv, 2010), 긍정적인 정서가 창의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조은예, 최인수, 2008; De Dreu, Baas & Nijstad, 2008; Grawitch, Munz & Kramer, 2003).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과 전체처리가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지각의 처리유형 및 창의적 결과물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연구들에서 보여준 정서, 전체처리, 발산적 사고 및 창의성과의 관계를 생각해볼 때, 한 개인이 창의성에 대해 암묵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전체처리와 발산적 사고가 촉진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창의성에 대해 암묵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개인일수록 전체처리와 발산적 사고가 어려워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해 암묵적 편견이 낮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편견이 높은 집단에 비해 지각의 전체처리가 부분처리보다 더 빠를 것이고, 발산적 사고가 증대되기 때문에 기능적 고정화로부터 벗어나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할 것을 예측한다. 암묵적 편견의 정도와 창의적인 성과물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 이 결과는 한 개인이 창의성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가 향후 개인의 창의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요약해볼 때,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창의성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이미 국외의 연구(Mueller et al., 2012)에서 창의성에 대한 양면적인 태도를 보고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창의성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를 비교한 연구가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서구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명시적인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을 예측한다.

둘째,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은 전체 처리의 이득을 감소시키는가?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이 높은 개인일수록 전체처리의 이득이 감소될 것을 예측한다.

셋째,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과 창의적인 결과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이 증가할수록 사고의 영역이 축소되어 창의적인 결과물이 감소될 것을 예측한다.

방 법

참가자

대학생 63명(남=24, 평균연령 만 20.9세, 표준편차=2.42)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실

험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과목이수에 필요한 크레딧을 받았다.

실험설계

본 연구의 첫 번째 변인은 집단(암묵적 편견 낮음 vs. 암묵적 편견 높음)이었고, 두 번째 요인은 자극유형(전체자극 vs. 부분자극)이었다. 첫 번째 독립변인은 참가자간 변인이었고, 두 번째 독립변인은 참가자내 변인이었다. 종속측정치는 전체지각 및 부분지각의 반응시간이었다.

실험재료 및 절차

자극 제시 및 반응 기록은 e-prime 소프트웨어(Schneider, Eschmann, & Zuccolotto, 2002)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자극은 14인치 컴퓨터 화면을 통해 제시되었다. IAT검사는 그림 1과 같이 창의성/실용성과 연관된 단어들 혹은 긍정적/부정적 단어들을 화면중앙에 제시하고, 참가자가 화면 왼쪽의 범주(예: 창의성, 긍정)와 화면 오른쪽의 범주(예: 실용성, 부정) 중에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반응키를 누르도록 지시했다. 창의성과 연관된 단어들은 ‘독창적, 진귀한, 새로운, 발명품, 창의적’이었고, 실용성과 연관된 단어들은 ‘실용적, 편리한, 유용한, 구성적, 기능적’이었다. 또한 긍정적 단어들은 ‘평화, 휴가, 웃음, 사랑, 행복’이었고, 부정적 단어들은 ‘질병, 죽음, 가난, 구토, 오염’이었다. 이 20개의 단어들은 Mueller 등(2011)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이었으며, 참가자에게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시문을 통해 제시하여 각 개별단어들이 창의성, 실용성, 긍정, 부정의 범주 중에 어떤 범주에 속하



그림 1. 창의성의 암묵적 연합검사

는지를 명료하게 알렸다. IAT검사가 시작되면, 참가자는 왼쪽에 할당된 범주들에 부합하는 단어는 키보드의 ‘왼쪽(left)’, 오른쪽의 범주들에 부합하는 단어는 키보드의 ‘오른쪽(right)’을 눌렀다. 참가자들에게는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키를 누를 것을 지시했고, 오답을 누른 경우 빨간색의 “X” 표시가 나타났다. 참가자의 절반은 창의성의 단어들과 긍정단어들이 짝지어지는 일치시행블록(총 40시행)을 먼저 수행했고, 나머지 절반은 창의성의 단어들과 부정단어들이 짝지어지는 불일치블록(총 40시행)을 먼저 실시했다. IAT검사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IAT검사에서 사용된, 창의성과 연관된 5개의 단어들과 실용성과 연관된 5개의 단어들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태도를 9점 척도(1: 아주 부정적, 5: 보통, 9: 아주 긍정적)에 따라 평정했다. 단어평정과제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전체처리와 부분처리의 반응시간을 비교하기 위한 네이번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 자극으로는 Förster와 Higgins(2005)의 네이번 과제(navon task)를 참조하여 그림 3과 같은 알파벳 자극이 1개씩 사용되었다. 부분자극유형

에서는 L, S, O, P(5.8cm x 6.0cm)가 여러 개의 작은 F 혹은 여러 개의 작은 H(0.8cm x 1.1cm)로 이루어졌으며, 전체자극유형(5.8cm x 6.0cm)에서는 F혹은 H가 여러 개의 작은 L, S, O, P(0.8cm x 1.1cm)로 이루어졌다. 네이번 과제의 총 시행은 88회 실시되었다(16번의 연습시행, 36번의 전체자극시행, 36번의 부분자극시행). 전체자극시행과 부분자극시행은 무선적인 순서로 제시되었다. 네이번과제에서 참가자는 그림 4와 같이 제시되는 자극에 ‘F’혹은 ‘H’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가능한 신속하게 판단하여 반응키를 누르도록 지시받았다. 네이번과제가 끝나면 참가자는 2분 동안 종이컵의 대안적인 용도를 가능한 많이 적는 과제를 수행했다. 이후 참가자는 사후질문지를 작성했다. 사후질문지에서는 자신이 느끼는 창의성의 중요도를 9점 척도에서 평정하고, 본 연구의 취지를 파악했는지를 기록했다. 사후질문지가 끝나면 참가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실험이 종료되었다.

결 과

조작점검

본 연구의 사후질문지를 분석했을 때, 연구의 목적을 파악한 참가자는 없었다. 또한 사후질문지에서 참가자에게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평정하도록 했을 때($M = 7.83$, $SD = .92$), 참가자의 암묵적 연합검사의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r = -.04$, $p = .72$.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태도

Mueller 등(2011)에 따라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태도는 창의성과 긍정적 단어가 짝지어 제시되었던 일치블록의 반응시간에서 창의성과 부정적 단어가 짝지어 제시되었던 불일치블록의 반응시간을 뺀 수치로 산출하였으며, 일치블록 및 불일치블록의 제시순서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Greenwald, Nossek 및 Banaji (2003)의 계산법에 따라 D 수치를 사용하였다. IAT의 효과크기인 D수치는 일치블록과 불일치블록간의 평균차이를 모든 블록에 대한 반응시간의 표준편차로 나눈 것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인 부정적 태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D 수치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예: 노경란, 방희정, 2009)을 토대로 $D = 0$ 을 기점으로 창의성에 대한 편견이 높은 집단($N = 16$, $M = .35$)과 창의성에 대한 편견이 낮은 집단($N = 47$, $M = -.18$)으로 구분했다.

창의성에 대한 명시적 태도

참가자들은 창의성 및 실용성에 연관된 단어들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자기보고식의 질문지에 따라 9단계척도에서 평정하였다(1=아주 부정적, 5=보통, 9=아주 긍정적). 참가자들

은 창의성($M = 7.14$, $SD = .69$)과 실용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M = 7.08$, $SD = .90$).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높은 집단과 암묵적 편견이 낮은 집단은 창의성에 대한 명시적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t(61) = -1.225$, $p = .225$, 실용성에 대한 명시적 태도에서도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61) = -.779$, $p = .439$. 또한 창의성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r = -.05$, $p = .68$.

암묵적 편견과 전체/부분지각

표 1과 같이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높은 집단과 암묵적 편견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전체글자와 부분글자에 대한 반응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고자 집단(암묵적 편견이 높음 vs. 암묵적 편견이 낮음)과 자극유형(전체 vs. 부분)을 2개의 독립변인으로 변량분석을 실시했다⁵⁾. 전체지각 및 부분지각의 점수는 연습시행 및 오류시행을 제외한 후 산출했다. 전체지각의 점수는 “F”나 “H”가 전체구조로서 나타나는 모든 시행의 반응시간의 평균으로 산출했고, 부분지각의 점

5)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표본수가 크게 차이가 났음에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가 지각유형(전체 vs. 부분)의 변인을 반복측정한 혼합설계이며, 편견이 높은 집단($N=16$)의 표본수가 정규분포를 가정하는데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분산성 검증에서도 두 집단은 $p > .05$ 로서 집단간 동분산 가정을 만족한다. Levene 검증에 의하면, 전체자극 유형에 대한 오차분산에서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F(1, 63) = .046$, $p = .832$, 부분자극 유형에 대한 오차분산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63) = 1.435$, $p = .235$.

표 1.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전체/부분지각의 반응시간(ms, 평균)

	전체 지각	부분 지각
편견 높음 (N=16)	796 (127)	834 (132)
편견 낮음 (N=47)	768 (105)	891 (191)

주.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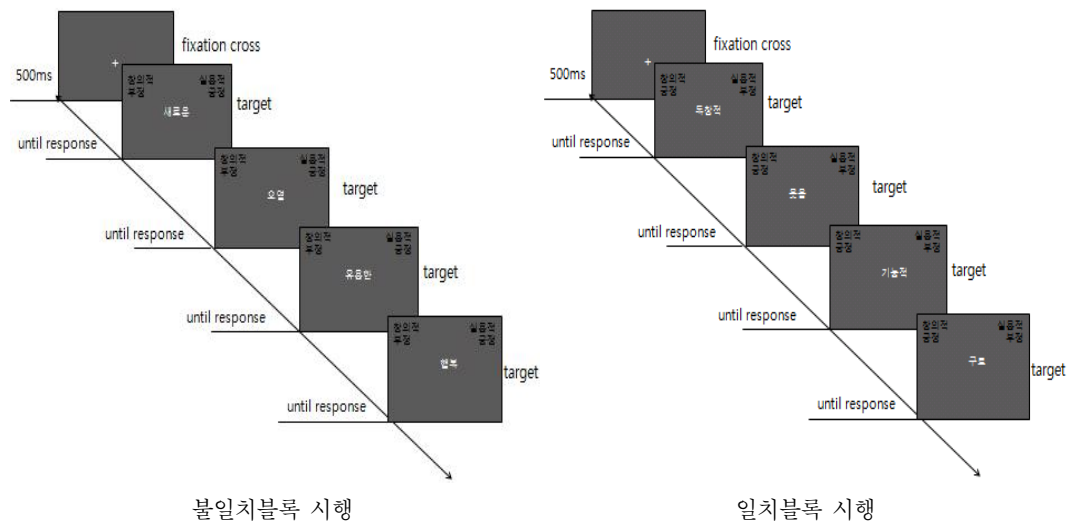


그림 2. 실험절차

수는 “F”나 “H”가 부분글자로서 나타나는 모든 시행의 반응시간의 평균으로 계산했다. 전반적으로 전체자극의 지각이 부분자극의 지각보다 빨라 자극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F(1,61) = 15.93, p < .01, \eta_p^2 = .20$. 이에 비해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 < 1$.

그러나 집단과 자극유형간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했다, $F(1,61) = 5.39, p < .05, \eta_p^2 = .08$. 암묵적 편견이 높은 집단에서는 전체자극이 부분자극보다 더 빨리 처리되는 경향성은 나타났다지만, 이 반응시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15) = -1.84, p = .09$. 암묵적 편견이



그림 3. 실험자극(왼쪽부터 “F”의 부분자극, “H”의 전체자극, “H”의 부분자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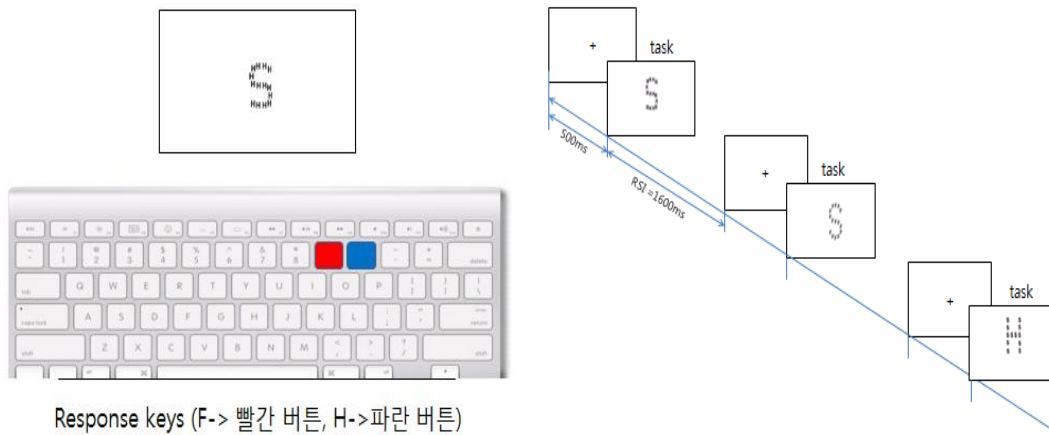


그림 4. 전체/부분 지각과제 수행 절차

낮은 집단에서는 전체자극의 지각이 부분자극의 지각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이 차이는 유의했다, $t(46) = -6.16, p < .01$.

전체지각의 이득효과

본 연구에서는 전체지각이 부분지각보다 전반적으로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Marguc 등 (2011)에 따라 전체지각의 이득효과를 산출하여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높은 집단과 암묵적 편견이 낮은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전체지각의 이득효과는 부분지각의 반응시간에서 전체지각의 반응시간을 뺀 수치로 산출하였으며, 이 수치가 커질수록 전체지각의 이득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암묵적 편견이 낮은 집단의 전체지각이득($M = 122$)은 암묵적 편견이 높은 집단의 전체지각이득($M = 38$)보다 유의하게 더 컸다, $t(61) = 2.32, p < .05$.

또한 전체지각의 이득은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편견수치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r = -.29, p < .05$. 이에 비해 창의성에 대한 명시적 태도는 전체지각의 이득과 유의

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r = -.02, p = .83$.

기능적 고정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높은 집단과 암묵적 편견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한 사물의 대안적인 용도를 생각하는데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다.

실험참가자가 종이컵의 대안적 용도(예: 장난감 전화기, 쏫대, 모자, 종이 오징어, 메모지)를 작성한 개수는 암묵적 편견이 낮은 집단($M = 7.6$)에서 암묵적 편견이 높은 집단($M = 6.2$)보다 유의하게 더 많아서 창의적인 결과물이 양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t(61) = 2.46, p < .05$. 또한 창의적 결과물의 양과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편견수치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31, p < .05$. 이에 비해 창의성에 대한 명시적 태도는 창의적인 결과물의 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r = .20, p = .11$.

논 의

우리는 창의성에 대해 외부적으로는 바람직한 속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는 이와 항상 일치된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창의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지만, 암묵적으로는 창의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참가자들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창의성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에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Mueller 등(2012)이 서구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주목할 것은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태도는 전체지각의 이득이나 창의적인 결과물의 양과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명시적 태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이 높은 집단에서는 창의적인 과정을 촉진하는 전체지각의 이득이 사라졌으며⁶⁾, 암묵적 편견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유창성이 적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정적인 정서 및 부분지각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들(Gasper & Clore, 2002)과 부정적인 정서는 사고 및 주의 영역을 축소시킨다는 Fredrickson(2001)의 확장-수렴-이론

(broaden-build-theory)과 연관해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암묵적인 편견과 연관된 부정적인 정서는 사고의 범위를 축소시켜 발산적 사고를 제한하며, 전체지각보다는 부분지각이 선행되도록 하여, 전체구조를 지각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 개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인 부정적 태도가 스스로의 창의적 과정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창의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창의성에 대한 명시적 태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암묵적 태도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인 측정을 통해 한 개인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측정해보고자 했다. 암묵적 연합검사는 개인의 내면적인 태도를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 다른 암묵적인 측정방법을 함께 활용했다면 좀 더 정교한 연구가 가능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면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근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예: 마우스 궤적(Freeman & Ambady, 2010)의 추적)을 활용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의 개인차를 측정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변인들이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예: 원래부터 창의성이 낮은 개인이 창의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실험에서 창의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변화를 조작했을 때, 전체지각의 이득이나 창의성 과제의 수행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후속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좀 더 명료한 분석을 할

6) Navon(1977)은 네이번 과제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글자가 부분글자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고했으며, 전체구조의 지각이 더 수월한 이유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함으로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도 창의성에 대해 암묵적인 편견이 높은 집단은 전체글자를 부분글자보다 더 신속하게 지각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지만, 이러한 이유에서 전체지각의 이득효과로 보기 어렵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창의성에 대한 태도가 창의적인 행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Gordon Allport(1935)가 태도를 사회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개념으로 강조한 데 이어, Greenwald 등(2009)을 포함한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은 태도가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기여함을 수차례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태도가 어떤 경로를 통해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편견이 높은 개인일수록 편견이 낮은 개인에 비해 창의적인 과정에서 중요한 전체지각의 이득이 사라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상대적으로 적게 생산되었음을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결과가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지각의 조절과정에서 초점이 축소되었기 때문인지(Friedman & Förster, 2005) 또는 발산적 사고과정이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방해되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힘들다. 넷째, 선행연구들(예: Dijksterhuis & Meurs, 2006)에 의하면 창의적인 과정은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태도가 창의적인 과정의 어떤 단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창의적인 과정에서는 특히 부화(incubation)의 단계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부화에서는 전체구조에 대한 지각과 발산적 사고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태도와 부화효과간의 관계에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후속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가 창의적인 과정의 다양한 단계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세분화된 탐색이 요청된다.

한병철(2012)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

기의 사회를 과도한 성취지향으로 인한 ‘피로 사회’라고 지칭했다. 왕성한 활동, 실용성, 기능성, 멀티태스킹의 능력을 강조하는 현대사회는 단순한 분주함과 초조함만을 초래했고, 창의성에서 중요한, 특정 대상에 몰입하여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빼앗아갔다고 했다. 구체적인 성과물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는 창의성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깊은 몰입과 창의적인 사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창의성에 대한 편견마저 심어주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창의적 과정이 침해되고, 창의적인 결과물이 감소됨을 보여주었다. 한 개인의 창의성을 독려하기 위해 창의성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환을 통해 개인의 창의성에 대한 내면적 태도는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창의성이 양적, 질적으로 풍부해질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개인의 암묵적 편견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 노경란, 방희정 (2009). 다문화시대 한국 초등학생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발달과 태도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49-79.
- 성은현, 한순미, 하주현, 이정규, 류형선, 한윤영, 박병기 (2008). 한국적 창의성과 창의적 환경에 대한 대학생들의 암묵적 이론.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367-390.
- 신민희, 구재선 (2010). 행복한 사람이 창의적이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 37-51.
- 이현지, 방희정 (2012).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대학생 및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2), 191-213.
- 조은예, 최인수 (2008). 재미에 관한 아동의 암묵적 지식과 플로우와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15-132.
- 한병철 (2012).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 Allport, G. W. (1935). Attitudes. In C. Murchison (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Worcester, Mass: Clark University Press.
- Brewer, M. B. (1999). The psychology of prejudice: Ingroup love or outgroup hate? *Journal of Social Issues*, 55, 429-444.
- Cameli, A., Reiter-Palmon, R., & Ziv, E. (2010). Inclusive leadership and employee involvement in creative tasks in the workplace: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safe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2, 250-260.
- Castelli, L., Zogmaister, C., & Tomelleri, S. (2009). The transmission of racial attitudes within the family. *Developmental Psychology*, 45, 586-591.
- De Dreu, C. K. W., Baas, M., & Nijstad, B. A. (2008). Hedonic tone and activation level in the mood-creativity link: Toward a dual pathway to creativit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739-756.
- Dijksterhuis, A., & Meurs, T. (2006). Where creativity resides: The generative power of unconscious thought.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5, 135-146.
- Dovidio, J. F., Kawakami, K., & Gaertner, S. L. (2002). Implicit and explicit prejudice and interra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62-68.
- Förster, J. (2005). Relations between perceptual and conceptual scope: How global versus local processing fits on similarity versus dissimilar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8, 263-275.
- Förster, J., & Higgins, E. T. (2005). How global versus local perception fits regulatory focus. *Psychological Science*, 16, 631-636.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 218-226.
- Fredrickson, B. L., & Branigan, C. (2005). Positive emotions broaden the scope of attention and thought-action repertoires. *Cognition and Emotion*, 19, 313-332.
- Freeman, J. B., & Ambady, N. (2010). MouseTracker: Software for real-time mental processing using a computer mouse-tracking method. *Behavior Research Method*, 42(1), 226-241.
- Friedman, R. S., & Förster, J. (2005). Effects of motivational cues on perceptual asymmetry: Implications for creativity and analytical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263-275.
- Friesen, J., & Sinclair, L. (2011). Distrust and simultaneous activation of multiple categorie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79, 477-492.
- Gasper, K. & Clore, G. L. (2002). Mood and global versus local processing of visual

- information. *Psychological Science*, 13, 34-40.
- Grawitch, M. J., Munz, D. C., & Kramer, T. J. (2003). Effects of member mood states on creative performance in temporary workshops.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 41-54.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G., McGhee, D., & Schwartz, J.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Greenwar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197-216.
- Greenward, A. G., Poelman, T. A., Uhlmann, E. L., & Banaji, M. R. (2009).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I.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17-41.
- Guilford, J. P. (1967). *The nature of human intelligence*. New York: McGraw-Hill.
- Hennessey, B. A., & Amabile, T. M. (2010). Creativ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1, 569-598.
- Kaufmann, G. (2003). What to measure? A new look at the concept of creativity.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7, 235-251.
- Marguc, J., Förster, J., & Van Kleef, G. A. (2011). Stepping back to see the big picture: When obstacles elicit global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 883-901.
- Mayer, J., & Mussweiler, T. (2011). Suspicious spirits, flexible minds: When distrust enhances crea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 1262-1277.
- McCaffrey, T. (2012). Innovation relies on the obscure: A key to overcoming the classic problem of functional fixedness. *Psychological Science*, 23, 215-218.
- Mueller, J. S., Melwani, S., & Goncalo, J. A. (2012). The bias against creativity: Why people desire but reject creative ideas. *Psychological Science*, 23, 13-17.
- Navon, D. (1977). Forest before trees: The precedence of global features in visual perception. *Cognitive Psychology*, 9, 353-383.
- Nock, M. K., & Banaji, M. R. (2007). Prediction of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among adolescents using a brief performance-based tes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5, 707-715.
- Staw, B. M. (1995). Why no one really wants creativity. In C. M. Ford & D. A. Gioia (Eds.), *Creative action in organizations: Ivory tower visions and real world voices* (pp.161-166). Thousand Oaks, CA: Sage.
- Sullivan, D. M., & Ford, C. M.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novelty and value in the assessment of organizational creativity. *Korean Journal of Thinking & Problem Solving*, 12, 15-34.
- Torrance, E. P. (1966). *Torrance tests of creativity*. Princeton, NJ: Personnel Press.
- Westby, E. L., & Dawson, V. L. (1995).

Creativity: Asset or burden in the classroom?
Creativity Research Journal, 8, 1-10.

논문투고일 : 2012. 9. 6.

1차 심사일 : 2012. 9. 27.

2차 심사일 : 2012. 11. 4.

게재확정일 : 2012. 11. 26.

The Implicit Attitude against Creativity and Global Perception Benefits

Hong Im Shin

Sogang University, BK 21 Projec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measures implicit attitudes of participants and is regarded as an effective method for expecting future behaviors. Based on the IAT, this study aimed to answer the question, whether implicit attitudes of an individual about creativity have any kinds of impact on global perception, which might be important for a creative process. In the experiment,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ords, which were associated with one of four categories, while one attitude category (creativity/practicality) and one evaluative category (good/bad) were always paired together either on the left side or on the right side of the computer screen. After completing the IAT test, participants were l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to assess explicit attitudes toward creativity and practicality. Then they conducted the navon task, in which they had to find one of two letters, 'F' or 'H', which were presented either as a local form or as a global form. Finally, the participants had to write down as many untypical functions of an object as possible. The results showed that not the scores of explicit attitude scores but the IAT scores correlated with the reaction time of global perception. The global perception was faster in the participants with the low IAT scores than the local perception. Compared to this, the global perception benefits disappeared in the participants with the high IAT scores. Additionally, more creative ideas about the functions of the object were listed in the group with the lower IAT scores. Implications of the role of implicit attitudes about creative processes are discussed.

Key words : implicit association test, creativity, prejudice, global perception